

종조멸도절 종령법어



님의 증생구제와 불국정도의 건설이라는 대원력을 계승하여 정진과 수행으로써 오늘의 총지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열반일을 기리면서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 입교개종의 참뜻을 천명하시어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即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가르치고, 또다름 한편으로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였습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종의 종지(宗旨)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종조님의 구국도생(救國度生)과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 그리고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이 오늘의 총지종이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단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엇 송곳 끝에 얹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 반성으로 생활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수행적 성숙을 가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바세계에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지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이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실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총지종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청정수행종단'으로 우뚝 서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종단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풍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며, 교화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상과 사상을 더욱 확립·발전시키고, 총지종의 수행법과 의례를 더욱 여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종도 여러분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르침을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오마니반메홍, 오마니반메홍, 오마니반메홍

총기 43년 9월 4일
종령 효강 합창

오늘은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大道)를 열어 고통에 허덕이고 무명에 가려진 일체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시겠다는 커다란 발원으로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동안 승단과 교도들이 원정 대성사

제34주기 원정대성사 멸도절 추선불사

9월 4일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예정

원정대성사 열반 제34주기 멸도절 추선 불사가 오는 9월 4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이번 불사는 9월8일 봉행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9월 4일 봉행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종조 멸도절 법어를 통해 "종조님의 구국도생(救國度生)과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 그리고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이 오늘의 총지종이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단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엇 송곳 끝에 얹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 반성으로 생활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수행적 성숙을 가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종조님

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밀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에서 일직(孫)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 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한국 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종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 교도들의 종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곧은 성품으로 총지종 교화의 선봉에 서다

불교총지종 전 중앙종의회 의장 대자행 지수 열반 8월 21일 고결식 및 연화식 봉행



원정 대성사와 함께 불교총지종 창종을 함께한 대자행(大慈行) 지수가 총기 43년 8월 19일 새벽 열반에 들었다. 통리원은 장의위원회(위원장 법등 통리원장, 집행위원장 인선 정사)을 구성하고 통리원장으로 지

르기로 결의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설치하고 유가족과 종단 관계자들의 조문을 받았다.

8월 21일 오전 10시 장례 집행위원장 인선 정사의 집무실에서 봉행된 고결식은 전국

의 스승들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봉행되었다.

고결식에서 승단을 대표한 연등원 전수는 조사에서 "창종 원년부터 청주선교부 주교를 시작으로 교화일선에서 오로지 굳건한 사명감과 깊은 신심으로 종단발전과 일체중생의 제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대자행 스승님! 미흡한 저에게 때로는 사랑과 자비하신 마음으로, 소탈하고 화통하신 모습으로 승직자로서 가야할 길을 보여주신 대자행 스승님의 자비하신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아른 거립니다."며 대쪽같은 성격으로 진언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신 스승의 모습을 떠올렸다.

교도를 대표해 서울 경인 신정회 만덕장(김은숙) 회장은 조사에서 "대자행 지수님! 작년 총지종보 편집회의 차, 흥국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며 '와짜서 반갑다' 라고 말씀하셨던 목소리가 아직까지 지릿가에 맴돕니다."며 생전 따뜻한 마음

으로 교도들을 대하시던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고결식을 마친 대자행 지수의 법구는 서울 연화원에서 다비식을 봉행하고, 생전 스승님의 유언으로 괴산 수련원 중원사 주변에 산골하였다. 대자행 지수는 육신은 사대로 돌아가고, 영식은 총지종의 스승으로 남아 영원히 염송정진을 하기를 서원했다.

경북 달성 출신인 대자행 지수는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같이한 초대 원로 스승들 중의 한분이다. 불교총지종이 1972년 12월 24일 서울 상봉동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개종불사 겸 창종식을 거행할 때 함께하신 대자행 지수는 창종 원년 12월 29일 부로 청주선교부 주교로 임명되어 정통밀교 총지종 교화의 문을 열었다. 불교총지종 재단법인 초대이사, 종령자문위원, 응신서원당 주교, 중앙종의회 의장, 지인사 주교를 거쳐 1990년 기로원에 진원하였다. 49재는 9월 30일 총지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지면안내

- 1면 종조멸도절 종령법어
- 2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세월호 관련 긴급성명 발표
- 3면 종립 동해중학교 신임 교장, 교감 취임
- 5면 특별기고 일본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 탐방
- 6-7면 종조멸도절 특집
- 11면 한가위 가족과 함께 볼만한 전시공연

새로운 중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원정 대성사 제34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 제34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 시 총기 43년 9월 4일 (일)

대 상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장 소 총지종 원정기념관 및 전 사원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성공리에 폐막 8월28일 조계종 총무원장 2019년 까지 대표의장에 추대



▲ 의장 수락 인사말을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8월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제8차 총회 폐회식을 가지고 한국대회의 막을 내렸다. 폐회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 대표의장에 추대됐다. 이에 따라 자승스님은 다음 ACRP 총회가 열리는 2019년까지 단 삼수단 의장과 함께 ACRP를 이끌게 됐다.

폐회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ACRP 대표의장직을 수락 연설에서 "ACRP 의장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유구한 종교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교간 대화 기구인 ACRP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단 삼수단 의장은 ACRP를 대표해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1만 달러를 KCRP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아시아 전역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화과 국제화합을 전제로 국가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에서 ACRP는 "전쟁과 갈등은 인간 정신의 패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통과 죽음만을 초래한다"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위해서 역사의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선언'도 채택하고, 한국과 북한의 조건없는 대화,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다양성과 인간의 가치 존중, 평화를 최우선시하며 함께 나아가 것 등을 촉구했다.

진각종 회당장학생 대상 제7기 수행연수 개최 새벽정송, 경행 1박 2일간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제 48기 회당장학생들이 8월 26일 오후 1시 진각종 교육원(교육원장 경당 정사) 주최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열린 제7기 수행연수 발단 불사를 봉행했다. 회당장학생 40여명은 발단불사 후 교육원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성제 정사의 지도로 '자애명상' 시간에 이어 '총무부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덕정 정사는 "자성학교를 지나 청소년기를 잘 넘기고 이렇게 성장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준 것은 아마도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멘토들이 곁에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 심인당이나 비야(VIYA)를 통해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도안심인당 주교 도향 정

사의 지도로 '자기발견의 시간'을 갖고, '정진실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행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심인당을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밖에도 새벽정송, 경행, 소감문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한 후 해단불사를 갖고 회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긴급 호소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31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승 스님은 정치권과 유가족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아래 호소문 전문)

안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언어와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쟁을 접고 여야간 직접 대화에 나서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각자의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세월호 사고로 큰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온 국민이 비탄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또한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국회여야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할 때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에게도 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화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포용하여,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두 번의 합의와 번복, 장외투쟁 등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유가족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유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종교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불기2558(2014)년 8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

성남 교도복지시설 입주자 모집

불교총지종의 교도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성남 교도복지시설이 지난달 완공되었다. 총지종 통리원은 9월부터 서울.경인 교구 65세 이상 교도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성남 법전사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은 3층 건물로 총 15개실을 갖추고,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가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 6실도 포함 되어있다. 특히 1일 3식의 공양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이 식생활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동세탁실과 공용목욕탕 등의 편의 시설에도 만전을 기했다. 통리원은 만 20년 이상 정진한 교도와 오세대제도를 성만한 교도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입주를 원하는 서울.경인 교구 교도들은 각 사원 주교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통리원 02)552-1080

선립사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 봉행 예정 9월 12일 대구·경북 교구 주최로

선립사(주교 심지장 전수) 만다라 이설 가지불사가 9월 12일 대구·경북 교구(교구장 안성 정사) 주최로 봉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교구에 의하면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선립사의 오랜 염원인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를 오는 9월 12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선립사는 포항 북부 지역의 중심 사원으로 총지종의

교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양계 만다라 봉안으로 선립사는 기존 교도들의 염승정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오세대제도를 위한 기틀을 마련 할 전망이다. 이번 가지불사에는 대구·경북 교구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 할 예정으로 만다라 봉안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충만하기를 서원 했다.

총기종보 창간 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불교총지종 통리원
· 발행인 : 구범등 | 편집인 : 구범등 | 편집장 : 김종열
· 편집국 (02)552-1080 | 팩스 (02)552-1082
· 구독 및 광고 문의 (02)552-108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전문신문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바라밀 공부방 여름캠프 8월 11일-12일 1박 2일로 다녀와



▲ 경남 산청 경호강에서 래프팅 체험을 하는 바라밀 공부방 학생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학생들이 즐거운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지난 8월 11일에서 12일까지 1박 2일로 경남 산청 경호강으로 열렸다. 인솔교사를 포함 한 총 26명이 참가한 이번 여름 수련회는 경호강 래프팅 등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에 지도 교사로 참가한 민지영 교사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며 재단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가 자주 있으면 했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7/28 10,000	밀인사 정정희 7/30 5,000	천소영 8/12 10,000	사원명무기재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강순사 강순시 8/13 10,000	무명씨 8/13 10,000	이준동 8/25 10,000	원정연 7/28 20,000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무명씨 8/18 20,000	벽룡사 양정현 8/13 10,000	장재은 8/25 10,000	서선숙 7/28 10,000	
이희권 8/26 10,000	양지현 8/13 10,000	김지연 8/25 10,000	하명순 8/18 10,000	
관성사 황성녀 7/30 10,000	선립사 심지장 8/20 10,000	김재희 8/26 30,000	김갑선 8/19 10,000	
김병석 7/30 10,000	김경희 8/22 10,000	김지영 8/26 10,000	정종호 8/20 10,000	
인선 8/25 20,000	수인사 무명씨 7/29 10,000	정각사 김문수 7/31 10,000	무명씨 8/21 20,000	
김병석 8/26 10,000	김봉기 7/29 10,000	제석사 신경희일동 8/5 200,000	서선숙 8/24 10,000	
기로대관 8/25 10,000	정순득 8/13 10,000	안용준 8/5 100,000	권향덕 8/25 10,000	
대자행 8/25 10,000	승천사 원봉 8/19 10,000	지인사 허성동 8/19 30,000	김남미 8/25 10,000	
밀공정 8/25 10,000	지선행 8/19 10,000	승효제 8/19 10,000	강경화 8/26 10,000	
법수원 8/25 10,000	실보사 이순옥 7/31 10,000	지성 8/19 10,000		
법장화 8/25 10,000	실지사 정경자 7/29 10,000	초록어린이집		
법지원 8/25 10,000	정우석 7/30 10,000	황화성 7/26 30,000		
불멸심 8/25 10,000	운천사 무명씨 7/30 10,000	현진영 7/26 10,000		
사홍화 8/25 10,000	이성미 8/8 50,000	오현주 7/30 10,000		
상지화 8/25 10,000	일원어린이집	이은주 7/31 10,000		
수증원 8/25 10,000	이준동 7/26 10,000	무명씨 8/25 10,000		
총지화 8/25 10,000	김지연 7/26 10,000	황화성 8/25 30,000		
선도원 8/25 10,000	김지영 7/26 10,000	총지사 법등 8/4 30,000		
단음사 신정희일동 7/30 100,000	최복란 7/28 10,000	혜정사 정은선 8/13 10,000		
법연지 8/19 10,000	하재희 7/28 30,000	홍국사 지정 8/19 20,000		
만보사 정덕순 7/28 10,000	구미자 7/31 10,000			

후원회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문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사원 '득락전' 관계 2차 주교회의 개최

밀교연구소 주최, '득락전 운영' 지침과 '불공의식' 시안 마련



▲ 수인사에서 개최된 '득락전 관계 회의'

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법전사 주교)는 8월 2일 오후 1시 포항 수인사에서 '득락전(得樂殿) 관계 회의'를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불공의

식에 대한 시안을 결정하였다. 득락전 운영 세부지침은 원불(願佛)의 명칭 통일, 극락왕생과 소원성취불공의 이원화, 만년불의 명칭 사용, 만년불 봉안 기간, 원불봉안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불과 연등의 동시 봉안, 연등

가격, 제수비와 불공비, 계약금 송금방법, 불공시기와 방법, 의식 등 운영 전반에 논의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장)는 "특히 불공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다루어서 불공의식의 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큰 수확"이라며 "연말까지 시안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최종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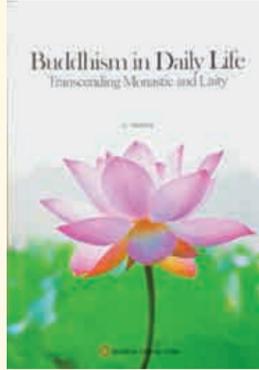
이날 마련된 불공의식 시안은 득락전의 불공을 총 14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적합한 불공의식을 갖추고, 기존의 영식천도불공과 축원불공 외에 별도의 식순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회의에는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 성화사 주교 지광 정사,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 유가해 전수,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제석사 주교 행원심 전수가 참석하였다. 3차 회의는 12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화령 정사의 《생활불교, 재가불교》 영문판 발간 《BUDDHISM IN DAILY LIFE》

생활불교에 대한 이념과 실천 방안 수록 / 영어권 불자들의 생활불교에 대한 이론정립에 도움 / 불교의 소통과 승속을 초월한 참대승을 강조



생활불교 운동과 이념에 대한 화령 정사의 논술집 《생활불교, 재가불교》

의 영문판이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은 《Buddhism in Daily Life》라는 표제를 달았고 모두 1000부가 발간되었다. 이 논술집은 생활 불교 철학에 대한 이념 정립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것인데 지난 6년간 본 종단에서 주최한 국제재가불교포럼(ILBF: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에서 발표된 것들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영어권 불자들을 위하여 출간한 것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본 종단의 중지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관념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교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실천을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깨달음에 대한 저자 본인의 독특한 시각과 함께 오게 준수의 현대적 의미도 담고 있다. 아울러 한 국제재가불교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불교의 대사회적 소통과 승속을 초월한 참대승의 길로 나아가는 열린 불교를 지향하고 있어 외국인 불자들에게는 생활불교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불자의 역할에 대한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구입문의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 02-508-8933)

종립동해중학교 신임 교장 및 교감 취임식

신임 교장에 탁상달 선생님, 교감에 김재근 선생님



▲ 취임사를 하는 신임 탁상달 교장 선생님

불교총지종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신임 교장에 탁상달 선생님, 교감에 김재근 선생님을 임명하고, 9월 1일 학교 해오름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재단 이사회는 8월 28일 이사장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취임식에서 신임 탁상달 교장 선생님은 "인간 중심의 실천하는 학교, 기본에 충실

한 실력을 겸비한 학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교경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내 직장을 자랑할 수 있고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다니는 학교를 온 전하에 자랑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며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취임한 탁상달 교장선생님은 안동 경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하였다. 동해중학교 교감을 역임하고 이번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교감선생님에 취임한 김재근 선생님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동해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연구부장, 파라미타 지도교사를 역임하고 교감에 취임했다.

기를 서원합니다."며 전임 총무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임 총무 최영아 보살은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교도들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하며,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며 취임의 소감을 밝혔다.

총지사= 이인성 통신원

왕생극락발원 '가지토 함(函)' 제작 배포

밀교연구소, 광명진언으로 가지한 토사를 담은 함(函)을 제작



▲ 종단에서 제작배포한 가지토함

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법전사 주교)는 지난 8월15일 제례(祭禮)에 사용할 가지토함(加持土函)을 제작하여 전국사원으로 배포했다. 가지토(加持土)는 상장례와 제례의식에 쓰이는 흙을 말하는

데, 이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광명진언으로 가지(加持)한 흙을 말하며, 이러한 흙을 가지토(加持土)라 한다.

가지토는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시신이나 산소에 뿌리는데, 이 가지토를 뿌리면 망자의 죄업이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게 된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불공건설변진언경』이나 신라 원효대사의 『유심안락도』에 따르면, '광명진언으로 가지(加持)한 토사(土砂)를 죽은 사람이나 무덤 위에 뿌리면 망자는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고 하였다. 또한 '죽은 자의 시신(屍身)이나 뼈 위에나 혹은 무덤 위나 탑 위에 뿌리면, 저 죽은 이의 심식이 지옥·아귀·아수라·축생 가운데 떨어졌어도 모든 불공여래와 불공비로자나여래의 진실본원대관정광진언(眞實本願大灌頂光眞言)으로 가지한 흙모래의 힘으로 뿌리는 즉시 광명이 그 몸에 이르러서 모든 죄업의 과보가 제거되고 괴로운 몸을 버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연꽃에 화생(化生)하고 보리(菩提)를 이룰 때까지 다니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원효대사는 바가지에 강변의 깨끗한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그 모래를 묘지나 시신 위에 뿌려 망자의 영식을 전도하였다고 한다.

총지종은 창종 이후 광명진언과 가지토(加持土)를 적극 사용해 왔다. 이번 밀교연구소는 가지토 함을 제작하여 교화방편으로 삼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 장례 시에 스승이 직접 가지토를 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도가 산소나 납골묘로 성묘를 가거나 벌초를 할 때는 교도가 직접 '가지토'를 뿌리면서 망자의 죄업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원토록 하였다. 성묘를 떠나는 교도는 사원 스승님께 '가지토'를 주문하여 조상영식과 선망부모,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면 된다.

서울 총지사 신정회 신임 총무에 최영아 보살 임명

지난 8월 17일 서울 총지사 신정회(회장 김은숙)는 신임 총무에 최영아 보살을 임명하였다. 8월 17일 자생일 법회를 마치고 김은숙 회장은 전임 총무 최해선 보살에게 그간 수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

임 최영아 보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은숙 회장은 "그동안 수고해 주신 최해선 보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교도들을 이해 노력한 공덕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일이 원만 성취하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내, 3층 총 15실
- 입소인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욕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불교의 선정 31

사념처 수행

법념처(5)

관사성제(觀四聖諦)-멸성제 1-열반의 의미와 종류

멸성제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의미

화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법념처 수행의 마지막 사성제를 관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멸성제는 괴로움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환자로 치면 병이 완전히 나아 정상인 상태로 돌아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고성제와 집성제를 관하는 것이 병의 상태와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라면 멸성제를 관하는 것은 병이 완전히 나은 상태를 관하는 것으로 집성제에서 말하는 갈애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 대한 고찰이다.

멸성제는 간단히 멸제라고도 하는데 불교의 궁극의 목표이며 최후의 이상이라고 하는 열반을 가리킨다. 삼법인에서 말하는 열반적정이 곧 이것이다. 갈애를 멸하여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멸한 경지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고라는 일체개고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깨닫지 못한 무명중생의 생사윤회의 상태가 일체개고라면 생사를 초월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성자의 상태가 열반적정이다. 열반이나 적정은 같은 말인데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열반에는 유어열반(有餘涅槃)과 무어열반(無餘涅槃)이라는 것이 있다. 유어열반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과거의 선악업의 과보로써 얻어진 육신이 남아 있는 한 완전한 열반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한은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서 무어열반이라는 것은 업보에 관계된 육신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뒤에 얻게 되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열반(般涅槃)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입멸을 중심으로 설해진 《대반열반경》의 반열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어열반이나 무어열반의 개념은 열반을 실제시키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도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교에서는 원래 이런 개념이 없었다. 육신이 없어진 후에 완전한 열반이 얻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타던 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활활 타오르던 탐진치의 불꽃이 수행에 의하여 잠잠하게 꺼진 상태가 열반이다. 경전에서 열반을 한 마디로 정의하여 '탐욕이 멸하고 진애가 멸하고 우치가 멸한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설하고 있다. 즉 탐진치의 삼독의 번뇌가 완전히 멸한 것이 열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서 아무 것도 없는 회신멸지(灰身滅智)의 상태가 아니다. 즉, 죽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는 다른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멸해서 마음이 적정안온의 이상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의 열반에 대해 아함부의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잡아함경》에서는 열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무위(無爲), 구극(究極), 무루(無漏), 진제(眞諦), 피안(彼岸), 미묘(微妙), 극난견(極難見), 불로(不老), 견뢰(堅牢), 불괴(不壞), 불가설(不可說), 불희론(不戲論), 무장애(無障礙), 적정(寂靜), 불사(不死), 극묘(極妙), 정복(淨福), 안온(安穩), 애진(愛盡), 희유(稀有), 미증유(未曾有), 무재(無災), 무재법(無災法), 이것이 열반이라고 선서(善逝)께서는 말씀하셨다.

경전에서 설한 이러한 열반의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여러 가지 열반의 정의 가운데서 열반을 '무위'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 이것은 업을 짓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열반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는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구극'이라는 것이 있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열반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무루'라는 것이 있다. '루(漏)'라는 것은 더러운 번뇌를 말한다. 열반은 그 번뇌가 다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무루라고 한 것이다. '진제'는 열반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뜻이다. 세간법인 속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열반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피안'은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안온한 깨달음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인데 열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흔히 '도피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다음으로 열반을 '미묘'라고 표현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훌륭한 것이 열반이라는 의미이다.

'극난견'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는 매우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불로'는 불사와 마찬가지로 늙고 죽음의 경지를 초월해 있다는 뜻이다.

'견뢰'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불괴'와 거의 같은 뜻

'극묘'라는 말은 극히 미묘한 경지라는 뜻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도 묘한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이다.

'정복'은 한 점의 번뇌도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열반이라는 의미이다. 세간복은 다할 때가 있지만 열반에 의해 누리는 복은 끝이 없으며 가장 뛰어난 복이다.

'안온'은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가 열반이라는 의미이다.

'애진'은 애욕이 다한 것이 열반의 경지라는 뜻이다. '애'는 갈애로서 탐진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 갈애의 밑바탕에는 무명이 자리 잡고 있지만, 지혜에 의하여 무명이 멸해지고 탐욕과 집착의 갈애가 다한 경지가 곧 열반이다.

'희유'라는 말은 '미증유'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아주 드물다는 뜻이다.

완전한 열반은 부처님만이 증득하셨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무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열반의 경지는 부처님처럼 지혜를 지니신 분에게나 가능한 드문 일일뿐더러 역사상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일적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증유라고 하신 것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결코 죽어서 아무 것도 없게 되는 회신멸지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자각하고 실천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절대 안온의 경지

으로 열반의 경지는 견실하여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번하고 허물어지는 것은 세간의 유훘법이지만, 열반은 견고하여 변함이 없는 무유훘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또 열반을 '불가설'이라고 하고 있다. 열반의 경지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직접 체득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해줘도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그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혹은 누군가가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때의 그 감동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 사람은 남이 보았던 그런 광경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과 같이 열반의 경지도 스스로 체득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설'이라고 말한 것이다.

'불희론'이라는 것은 헛된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반은 죽어야만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각을 넘어선 세계도 아니고, 단순한 형이상학적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다.

누구나 바른 견해를 지니고 수행을 하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장애'라는 것은 어떠한 구속과 속박에서도 자유자재한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이다.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자유의 경지가 바로 열반이라는 의미이다.

'적정'이라는 것은 번뇌의 불길이다 꺼져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경지를 말한다. '불사'는 앞에서 말한 '불로'와 같은 의미이다. 태어남과 죽음의 경지를 이미 초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무명과 헛된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 삶과 죽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의하여 그 실상을 드러냄으로서 윤회를 벗어난 것이 불사의 경지이다.

'감로'는 더 할 나위 없이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라는 의미이다. 갈애의 불꽃으로 목이 타 들어 갈 때 시원한 물로 축여주듯이 열반은 더 이상 탐욕과 집착의 갈증이 없는 경지이다.

또 열반을 '무재'라고 한 것은 모든 재난이 없는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이다. 열반은 생로병사와 온갖 괴로움을 벗어났고 더 이상 업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도 더 이상 닥치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무재라고 하는 것이다. '무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초월한 경지를 드러낸 것이 열반이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열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열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열반의 경지는 말로도 나타낼 수 없고 지극히 미묘하며 증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형이상학적인 헛된 논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명을 제거하고 탐진치의 불꽃을 남김없이 끄는 것에 의하여 도달되어지는 열반은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초월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결코 죽어서 아무 것도 없게 되는 회신멸지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자각하고 실천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절대 안온의 경지이다.

열반이라는 것을 보통 생사를 초월했다든가 불사의 경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죽음이 없다는 생사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생사계의 바깥에 따로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떠난 열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도 열반이 찾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번뇌가 있고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다. 번뇌가 없다면 열반이라는 것도 없다. 도피안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 세계를 떠나서 달리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80 세로 입멸하실 때까지 늘 열반의 상태로 계시면서 교화를 하셨다. 열반이 반드시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석가모니부처님의 이러한 열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지혜에 의하여 무명을 제거했을 때 얻어지는 절대 평안의 경지이다. 그리고 그 경지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세계를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내면세계가 바뀌어 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위없는 지혜에 의하여 미망에 덮인 존재의 실상이 드러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모두 우리의 무명에 의하여 나타나는 번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뿐만 아니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성자들은 모두 생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열반에 있어서 생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생사윤회의 세계라는 것은 선악업의 지배를 받고 업보에 좌우되는 것인데 무명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지혜의 등불에 의하여 일체의 번뇌를 태워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집착하고 두

려워할 것이 없다. 집착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자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생사윤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이미 그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락이나 일신의 안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혜로써 무명을 밝히게 되면 마음에 장애되는 것이 없고, 장애가 없게 되면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모든 잘못된 망념을 여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을 얻게 된다(心無罣礙, 無罣礙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이른 부처님께서 무애자재로써 오직 중생 제도에 전념할 따름이다.

밀교의 경전인 《대일경》에서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도 성불의 궁극적 경지가 바로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의 활용에 있다는 뜻이다. 열반을 얻은 성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가 그대로 불국도이다. 불국도가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침을 얻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불국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와 나의 분별도 없어지고 집착하고 두려워 할 아무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이 세계는 그대로 불국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확대되어서 무명 중생에게까지 미쳐지는 것이 자비이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은 성자들의 자비에 의하여 서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 가고 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열반에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는 것이 있다.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무애자재의 경지가 무주처열반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상은 바로 이 무주처열반이며, 깨달아서 무주처열반에 머무르는 분들은 어떠한 걸림도 없이 오직 자비로써 무명 중생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삶은 바로 이 무주처열반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 불교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 탐방(1)

산골 마을에 사원만 117개가 모여 있는 일본 불교의 성지



▲ 고야산 역으로 오르는 등산형 케이블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학위를 받는데 까지 10년 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88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나는 강의실 보다는 시위 현장에서, 리포터 보다는 대학 학보사 기사를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민주화의 광풍이 몰아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고, 통일운동 한다고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다 수배와 투옥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 시간들이 지금 내 삶의 중요한 자원으로 남았다.

서른 살이 넘어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남들은 취직해서 결혼하고 직장에 열중

할 때, 아저씨 유학을 떠난 셈이다. 물론 동경에 누이가 살고 있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석사, 박사학위를 게이오와 와세다에서 하면서 나는 마음이 외로울 때면 가까운 사원을 찾았다. 물론 우리나라 불교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불교이기에 처음에는 이질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일본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불교가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조선을 거치면서 풍부했던 불교문화의 대부분이 왜곡되었다는 사실과 고려시대 화려했던 불교문화재가 강



▲ 고야산으로 들어가는 다이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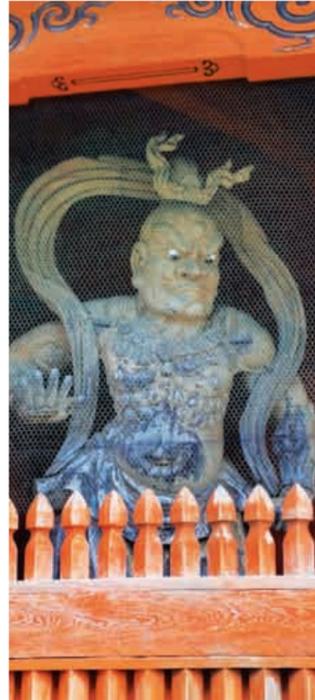
탈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사실 등에 적잖이 놀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적으로 친해진 친구인 총지중보 김종열 편집장으로부터 일본 불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일본 불교 성립 배경과 지금의 중단 상황 그리고 꼭 가볼 만한 일본 사원들의 정보를 주었다.

10년을 미루다 드디어 오사카를 방문하는 길에 와카야마현에 있는 고야산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히로시마의 폭우로 일어난 산사태 위험과 지역적 강우로 간사이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오사카 난바역에서 고야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철로 1시간 반을 가야했다. 중간에서 한번 갈아탄 열차는 시속 30-40키로의 저속으로 산악지대를 통과해 고야산 역으로 향했다. 마지막은 알프스 몽블랑 등산열차처럼 생긴 케이블카를 타고 경사가 급한 산을 올라야 했다.

고야산 역의 풍경은 일본의 사골 풍경 그대로였다. 현지에서 구한 관광 안내에는 다이몬(大門)에서 단상가람, 금강봉사로 이어지는 코스를 안내해 주었다. 시내버스로 약 10분 쯤 가니 버스의 종점인 다이몬에 정차했다.

다이몬(大門) 대문, 말 그대로 고야산의 정문이다. 일본을 여행한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사원이나 성곽 건물의 규모에 놀란다. 앞에서면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사무라이 권위 의식과 한편으로 통한다. 문 양편으로 인왕상을 모신 대문에는 한자로 고야산이라고 한자로 된 현판이 있다.



▲ 다이몬 좌우에 봉안된 인왕상



문을 지나면 고야산 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의 걸음이 많지 않아 좋다. 이곳이 일본에서 가장 추앙 받는 쿠가이(공해)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 나라의 영지를 받아 세운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사진=한신대 겸임교수 김재용



▲ 일본 진언종 근본 대탑



▲ 근본 대탑 내부에 봉안된 오불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입교개종으로 정통 밀교 총지종을 세우신 “원정대성사의 정통 밀교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총기 43년 9월 8일 이 땅의 정통 밀교를 우뚝 세우신 원정 대성사가 열반에 드신 지 34주기가 되는 날이다.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정우(禎佑)로 개명하셨다. 어려서부터 비범해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다고 한다.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시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이후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원정대성사 6.25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용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시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셨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던 중 진각종의 현행수행체계에 오류를 발견하고 《준제관음법》을 발굴, 이의 시행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한국의 현대밀교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쳐버리시고, 이른바 '준제파동'의 와중에서 진각종을 떠나 은거하시면서 밀교의 비법으로 정진하시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정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관세음보살의 몽수를 받고 교

상확립에 착수하셨다. 그 해 8월 21일 법신대일어래의 가지력과 원정대성사의 영명하신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성사께서는 오랜 은거의 수렴을 거두시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셨다. 마침 성사의 행방을 찾아 우왕좌왕하던 진각종의 중진스승들과 식견있는 제자들이 입교개종을 최촉함에 따라 밀교중흥의 결심을 굳히신 성사께서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원정대성사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면서 본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다.

대성사께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셨을 뿐 만 아니라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하심으로써 1980년 9월 8일 입적하실 때까지 한국 현대밀교사의 수립에 건인 역할을 하셨다.

원정 대성사께서 이루어 놓으신 정통 밀교의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전개하는 총지종 스승과 교도들은 오늘도 대성사의 유지를 받들고 교화와 정진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원정대성사 멸도 제34주기 특집 종조 법설 “인간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



▲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재세시 수인을 결하고 불공 하시는 모습

사람은 다 종교를 믿지만은 체계있는 종교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요행(僥倖)과 천우신조(天佑神助)를 바란다. 이것은 종교적 소성(素性)이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은 위급한 때를 만나면 종교적 행동이 들어난다. 이러한 행동은 체계가 없으므로 미신이고 오래 믿지도 못하게 된다. 예컨대 풍랑을 만났을 때나 탄광 중에 들어가 있을 때 종교자는 절대권능의 대상에 구원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는 체계가 있으므로 점점 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

종교가 많고 종파가 많아야하는 필요성

종교와 종파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 발전한다.

장점은 단점을 보완하고 각양근기에 맞는 종교를 찾아 많은 중생들이 들어와 능히 믿게 되며, 자기 종파의 주장을 타 종파에 굴하지 않으므로, 이정신이 능히 사상적 침략을 막아내어 능히 공산사상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美國)에서는 삼백여 종파가 있고 영불(英佛) 등 모든 나라 또한 종교국가 이므로 국내에 공산당이 있어도 능히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역시 신라 고려의 불교는 다종파(多宗派) 시대였던 고로 국위가 크게 떨쳤고 이조에 이르러서는 선교양종시대(禪教兩宗時代)였던 것이므로 이웃 나라에 속국이 되어 수난과 치욕을 당했다. 또한 한교(教)인즉 전제(專制)가 되고 다종파(多宗派)인 즉 자유평등 사회가 출현하는 법이다.

자유와 종교

만약 고귀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반드시 그것은 착한 사람 되는 조건이 될 것이나, 만약 악인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변하여 다른 사람과 대중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해독의 크기가 짝이 없으므로, 종교로서 선도한 후에 바야흐로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는 곧 자주(自主)이며 자제(自制)이다. 자주는 곧 자각(自覺)이요 자제는 곧 계행(戒行)이다. 선(善)을 행(行)하게 되면 곧 자주(自主)가 선다. 자제(自制)는 곧 악(惡)을 제어(制御)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유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곧 자유세계의 생명이다.

과학과 종교

과학(科學)은 물(物)의 주(主)요 종교(宗教)는 심(心)의 주(主)라(道義도의), 물(物)과 심(心)이 병진(並進)하면 인류는 향상한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여 좋은 물건이 많이 생산되어 탐욕은 점점 높아지고 인심은 점점 악해진다. 만약 도의(道義)가 없으면 그 악을 억누르지 못하여(形而上學) 인간은 악으로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다만 과학만으로서 능히 인간을 복되게 못하는

것이다. 과학인은 과학 만능의 자기도취에서 종교를 백안시(白眼視) 하는지라. 이로써 불진대 과학은 사람을 요약케 하고 종교로서는 완성하는 것이다. 종교는 사회를 순화하는데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아서 정맥의 탁한 피를 심장에서 정화하여 온몸에 다시 보냄과 같다. 사회의 모든 악은 종교가 정화하여 다시 사회로 보내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

정치와 종교는 마치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도 같다. 국법(國法)에는 죄는 벌주고 교법(教法)은 착한 것은 상을 준다. 각각 먼저 인식이 들어가서 두려우면 악은 행하지 않고 환희하면 스스로 선을 행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건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음양이원(陰陽二元)이 상대로 표리(表裡)가 병행하면 사반공배(事半功倍)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도의심(道義心)의 양양(昂揚)은 민중을 더불어 교화하고 풍속을 화케 하는 중추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종교로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고로 자유민주국가는 정치로서 그 자유를 주는 것이고 종교는 그 양심이 자제하는 곳에서 바야흐로 자율이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 민주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치가 이와 같은 즉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종교는 자유세계의 정신적 유대가 되어 전 세계가 하나같이 되는 것이다. 각국 국민은 국민정신과 민족사상은 비록 다를지나 오직 신앙하는 종교적 이면만은 고통함이 흡사하고 생활풍속은 각각 다르지마는 신앙생활과 윤리감은 동일한 까닭이다. 이로써 본다면 정치와 종교는 일치 협조하여 민심을 능히 수렴하고 선도하게 되므로 도의국가의 성과라 할 것이다. 이를 가리켜 예날 군주시대는 왕도정치라 했고 오늘날의 현시대는 진정한 민주정치라 한다.

국방과 종교

물론 어느 종교나 살생에 대한 금계(禁戒)가 있으며 그리고 종교의 본지(本旨)는 사악취선(捨惡執善)과 현정파사(顯正破邪)를 대강령으로 하는 고로 침략자를 응징하고 악을 치고 선을 복도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종교에서는 집중을

거부한다는 설도 들은 적이 있으나 그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일살다생(一殺多生)이라 하는 것이나 대승보살의 자비행이라 하는 등은 도리어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원광국사가 화랑요계를 세워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으로서 하고 싸움에 다달아서 물러남이 없다는 등 순전히 이것은 불교정신으로서 신라통일을 성취했고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 양대사(兩大師)가 결연히 분기해서 외구를 섬멸한 것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제 국군은 이러한 정신으로 유사지시(有事之時)는 분명히 일어서서 공산침략군을 섬멸하고 남북통일을 성취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 극락이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 되는 것은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는 까닭이 아니라. 그 열반이 단독이 아니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까닭이며 개인 상대가 아니고 사회 상대를 하는 것이다. 속세를 구제하지 못하면 극락도 없다 현세에서 악함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극락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대승이다. 염불왕생보다도 자신이 실천하고 남을 지도해야한다. 이것이 성불이요, 복덕이 그 중에 있는 것이라 지옥에는 소인이 들어갈 것이고 극락엔 선지식이 오를 것이다.

생활비중은 빈부에 따라 다르다. 빈한 사람은 물질이 칠이고 정신이 삼이 되지만, 조금 생활이 해결 되면 정신이 칠, 물질이 삼이 된다.

욕망도 생명도 영겁의 시간 앞에는 보장 없다. 영겁의 시간 앞에는 어떠한 기대와 욕망도 존재하지 못한다. 보장 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보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간법과 출세간법. 세간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뀌는 법. 중생이 무상한 까닭으로 시간성을 지닌 것이요. 영원성이 없다. 출세간법은 곧 불법 인간의 생사에 관한 법이므로 영원불변의 진리의 법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폐할 수도 없고 수정 할 수도 없다. 그 법은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이치를 깨치는 것이 불교이다. 마음의 작란을 알고 마음의 체성을 알고 진망의 상쟁을 아는 것이 불교이다.

대전 만보사

만다라 봉안 및 득락전 봉안 가지불사 봉행

대전 만보사가 「양계 만다라」, 「득락전」 을 만보사 교도들과 도움주신 여러분의 원력으로 장엄하고, 종단의 스승님들과 교도들을 모시고 가지불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보사 만다라 봉안 및 득락전 봉안 가지 불사

일시: 총기 43년 9월 23일(화) | 장소: 대전 만보사

 불교 총지종 총청 · 전라 교구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7)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만다라의 존상(尊像) ④ ‘불(佛)’

지난 호에서 불상(佛像)의 특징 가운데 32상(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80종호(種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 32상 80종호이다. 종호(種好)를 글자 그대로 풀어서면 '갖가지의 아름다운 모습, 자상한 모습'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80가지의 길상(吉相)이란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80종호는 32상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것으로 32상에 따르는 잘 생긴 모양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80종호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명칭도 각기 달라서 다양하게 불리고 내용이나 순서도 다르다. 명칭에 있어서도 미묘종호(微妙種好), 80수형호(隨形好), 80종소상(種小相) 등 다양하다. 부처님이 갖는 80가지의 작은 특징, 부처님이 인간과 다른 상호(相好)의 미(美)를 세별(細別)하게 표현한 것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신체에 갖춰지는 80가지의 미묘한 모습이라는 의미로서 부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 강화 전등사 목조 삼존불

80종호(種好), 미묘종호(微妙種好), 80수형호(隨形好), 80종소상(種小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진다.

부처님의 신체에 갖춰지는 80가지의 미묘한 모습... 80가지의 길상(吉相), 32상의 부처적 특징을 보여줌.

80종호는 여러 경전과 논(論)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지도론』의 내용이다. 32상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불신(佛身)은 백대겁(百大劫)의 긴 세월 동안 수행해야 감득(感得)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사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하게 닦아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80종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정수리가 보이지 않는다(無見頂), 코는 바르고 높고 홀륭하여 콧구멍이 나타나지 않으며(鼻直好孔不現), 눈썹은 초생달 같고 푸른 유리색을 띤다(眉如初生月紺琉璃色). 귀바퀴가 처졌고(耳輪垂成), 몸은 건실하여 나라연과 같으며(身堅實如那羅延), 뼈마디는 사슬과

같다.(骨際如鈎鎖). 몸을 한번에 돌리는 것이 코끼리 왕과 같으며(身一時廻如象王), 걸을 때 발이 땅에서 네 치 떨어지나 땅에 무늬가 나타나고(行時足去地四寸而印文現), 손톱은 적동색 같이 얇으며 윤택하다(爪如赤銅色薄而潤澤).

무릎뼈는 단단하고 원만하며(膝骨堅著圓好), 몸은 정결하고(身淨潔), 몸은 부드럽다(身柔軟). 몸은 곧고(身不曲), 손가락은 길고 섬세하며 원만하고(指長纖圓), 지문은 장엄하며(指紋莊嚴), 맥이 깊다(脈深).

복사뼈는 드러나지 않으며(蹠不現), 몸은 윤택하고(身潤澤), 몸은 스스로 견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身自持不透迤). 또 몸은 모두 구족하며(身滿足), 식(識)은 모두 구족하고(識滿足), 용모와 위위가 모자람이 없이 구족하다(容儀備足).

있는 곳은 편안하며(住處安無能動者), 위는 일체를 진동하고(威震一切), 일체를 낙관한다(一切樂觀). 얼굴이 크고 길지 않으며, 얼굴이 좁거나 길지 않고 적당하고(面不大長), 바른 용모로서 동요하지 않는 자태이다(正容貌不撓色).

얼굴이 구족원만하며(面具足滿), 입술은 빨강고 빈바 열매의 색과 같고(脣赤如頻婆果色), 음향이 깊다(音響深). 배꼽이 깊고 둥글며(臍深圓好),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毛右旋), 손발이 원만하다(手足滿). 손발이 여의하며(手足如意), 손금이 분명하고 곧고(手紋明直), 손금이 길다(手紋長), 손금이 끊어지지 않으며(手紋不斷), 나쁜 마음을 가진 일체의 중생을 보더라도 온화하고 기뻐하며(一切惡心衆生見者和悅), 얼굴이 넓고 아름답다(面廣姝).

얼굴이 깨끗하고 둥글어 달과 같고(面淨滿如月), 중생의 뜻에 맞도록 부드럽고 즐겁게 말하며(隨衆生意和悅與語).

털구멍에서 향기가 나고(毛孔出香氣), 입에서 더 없는 향기가 나며(口出無上香), 위와 용모가 사자와 같고(儀容如獅子), 나아가고 머뭇거리고 코끼리왕과 같으며(進止如象王), 걸음걸이가 거위 왕과 같다(行法如鵝王).

머리는 마타라 열매와 같으며(頭如摩陀羅果), 모든 목소리를 구족하고(一切聲分具足), 어금이가 예리하다(牙利).

혀의 색은 붉고(舌色赤), 혀는 얇으며(薄舌), 털은 홍색이다(毛紅色). 여기에서 홍가사(紅袈裟)가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털은 정결하고(母淨潔), 눈은 넓고 길며(廣長眼), 구멍의 문이 갖추어져 있다(孔門相具足). 손발이 붉고 희어서 연꽃색과 같고(手足赤白如蓮華色), 배꼽은 나오지 않고(臍不出), 배는 드러나지 않으며(腹不現), 배는 가늘다(細腹), 몸이 기울지 않으며(身不傾動), 몸가짐이 점잖고(身持重), 신체가 크다(其身長大). 키가 크고(身長), 손과 발이 정결하고 부드러운 광택이 나며(手足淨潔軟澤), 몸 주변이 빛이 각각 1길이고(邊光各一丈), 항상 빛이 몸을 비춘다(光照身而行). 이 빛이 바로 광배(光背)이다.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等視衆生), 중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不輕衆生), 중생에 따라 내는 음성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隨衆生音聲不過不減). 설법에 차별이 없으며(說法不差), 중생의 말을 따라 설법하고(隨衆生語言而爲說法), 한 가지 소리로 못 소리에 보답한다(一發音報衆生).

차례로 인연따라 설법하고(次第有因緣說法), 일체 중생은 부처의 상을 다 볼 수 없으며(一切衆生不能盡觀相), 보는 자가 싫증이 나지 않는다(觀者無厭足). 머리카락이 길고 좋으며(髮長好),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고(髮不亂), 머리카락은 잘 말려져 있으며(髮旋好), 머리카락 색은 푸른 구슬과 같고(髮色好如靑珠), 손 발이 덕이 있는 상이다(手足有德相)이다.

이와 같이 머리에서 발끝 까지 부처님의 모든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체 뿐만 아니라 그 위(威儀)와 덕성(德性)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도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성왕(聖王)에 대한 동경과 공경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인도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모두 가미한 것이다. 그러나 불상은 실제로 이렇게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몇몇 특징을 가지고 불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추상적인 묘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불신(佛身)을 신격화(神格化)한 탓이다.

이러한 80종호는 『장아함경』 『대반야경』 『방광대장엄경』 『나선경』 『관정경』 『승천왕반야경』 『대승백장엄경』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십송유』 『유부울잡사』 등 여러 경율논에서 설해지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보살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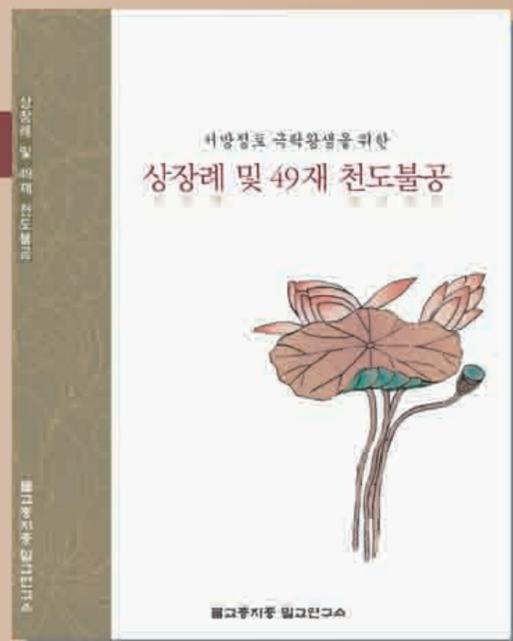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비매품 /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천태종, 삼회향놀이로 영산대재 성료

1만여 사부대중, 박수갈채 보내



▲ 천태종 삼회향놀이 회향법회

영가천도와 평화통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태종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에 수재가 삼회향놀이를 끝으로 여법하게 회향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8월 1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에수재 소전식을 봉행하고, 삼회향놀이를 시연했다.

지난 15일 입재한 영산대재에는 1만여 불자가 동참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

하고, 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봉행된 본 의식은 19일 오후 2시 소전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 의식 이후에는 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삼회향놀이가 펼쳐졌다. 삼회향놀이는 기무를 겸한 연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의식의 뒤풀이다.

이날 삼회향놀이는 예술단과 취타대 등이 협연한 가운데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등 총 세 마당으로 진행됐다.

법주역을 맡은 경혜 스님과 선재역을 맡은 석용 스님은 영산대에 참여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기리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관객들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구인사를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연극단원들의 연기에 박장대소했다. 특히 구인사 아리랑과 뱃놀이 가락에 맞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예술단을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마당인 실제회향에서는 구인사 삼회향놀이 보존회와 천태종 범음법패 보존회 스님들이 바라무와 법고무 등을 선보여 관객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삼회향놀이가 끝난 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장엄염불 구절인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有水 千江月) 만리무운 만리천(萬里無雲 萬里天)'을 인용해 회향법문을 했다. 스님은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비춰도 하늘에 달은 하나 뿐이고, 1만리나 되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그것이 다 맑은 하늘"이라며 "각자 마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제12회 동문대회 개최

양산 통도사에서 동문 300여명 참석



▲ 제12회 대불련 전국 동문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 총동문회)는 8월 23일(토)~24일(일) 1박2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어온 50년! 열거갈 5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2014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하고, 불교와 대불련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각오는 다지며, 대불련 50년의 축적된 힘으로 제2 도약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23일 열린 입제식에서 대불련 총동문회 백효흠 회장은 "이번 동문대회는 지난 50년의 축적된 힘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자" "열어온 50년! 열거갈 5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사회적 공감 이슈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대불련의 이 자리가 부처님 가르

침에 따라 분열되고 편향된 우리 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드리워져 어리석고 탐욕에 찬 중생에게는 지혜의 밝은 빛이, 어둠과 그늘진 곳,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혀 한국불교중흥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두 손 모아 축원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만드는 삶으로 대불련의 더욱 적극적인 실행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한국불교중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날 통도사에 자비의쌀 60가마 400만원을 전달했다. 통도사는 장애인 치료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불련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부산동문회와 경남동문회 및 산해원(마산 진해 창원)동문회, 울산동문회가 후원했다.

'작은 정성 모아 함께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관음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 추석맞이 나눔 행사 개최



▲ 인사말을 하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대한불교 관음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은 종로구 승인2동 지역주민 센터에서 '작은 정성 모아 함께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라는 주제로 8월 23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 정세균, 그리고 김영중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더욱 뜻 깊은 것은 금년도 삼성전자 공채 사원의 자원봉사 참여가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삼성전자 신입 공채 사원인 홍재웅(대과) 불자는 묘각사의 청년 불자로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교육을 받고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회사의 실제 연수교육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 되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른 추석을 맞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행사에는 약 240여명의 소외된 이웃이 참여하여 라면, 수건, 모기채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나눔으로서 작은 정성도 함께하는 훈훈한 마음을 나누었다.

올 추석은 예년에 비하여 약 20일 빨라 어려운 이웃들은 무더위를 체 이기기도 전에 민족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지역 차상위 계층과 노인 일자리 계층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음종은 일찍 개최했다.

한편 대한불교관음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은 2012년부터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주변의 이웃을 연 10회 나눔의 행사를 갖고 있다.

천태종 구인사국제선원 상량

올해 말 완공 목표 · 내년 봄 운영 예정



▲천태종 구인사 국제선원 상량법회

국내외에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불교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천태종 구인사국제선원의 대들보가 올려졌다. 선원은 올해 말 완공해 내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태종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국제선원 건설 현장에서 도용 중정 스님, 원로원장 윤덕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인사국제선원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불교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천태종 구인사국제선원의 대들보가 올려졌다. 선원은 올해 말 완공해, 내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용 중정 스님은 "욕망을 따라가다 고향을 잃었으니 본래면목 찾아나서 놓친 소를 찾아보라. 온갖 집착 다 놓으니 푸른 하늘 자유롭고 마음 기둥 올라가니 청정도량 에 아난가. 물들지 않는 연꽃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이여 깨달음을 따르라.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분별하지 말지니 어지러운 생각 떠나 악업을 멀리하라"고 법어를 설했다.

앞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구인사 국제선원은 마음 디스립의 공간으로, 인간 본래의 청정 자성을 회복하고, 자비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무한 에너지를 발휘시키는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 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교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철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奉化 鷲棲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및 木造光背)
소재지: 경북 봉화군 물아면 월계길 739, 축서사 (개단리)
시대: 통일신라



▲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문수산(文殊山) 정상 가까이 자리잡은 축서사에 모셔져 있지만,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상의 높이는 1,08m이며, 얼굴은 가는 눈, 꼭 다문 입, 반듯하고 넓은 신체에서 고요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에는 주름이 평행 계단식으로 표현되어 다소 형식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릎 사이의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진 주름은 다른 불상들의 U자형과는 달리 물결무늬로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평행 계단식 옷주름과 함께 9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대좌(臺座)는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한 8각으로 상·중·하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하대에는 각 면에 사자 1구씩을 새겼고, 중대에는 손을 모으고 있는 인물상을, 상대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었다. 현재 불상 뒤에 나무로 만들어진 광배(光背)가 있는데 여기에는 화려한 꽃무늬와 불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의 돌로 만든 광배는 윗부분만 남아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후기에 많이 만들어졌던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하나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과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어 당시 조각수법과 신앙형태를 알 수 있다. 석탑기에 의해 9세기 후반에 만들었다는 절대연대가 밝혀져 통일신라 후기의 불상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 보발수(寶鉢手)진언



옴 기리기리 바아라 흠 바탁

뱃속의 모든 병고를 없애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VISUAL 불교총전

제63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플라.kr>

바른 친구, 법을 만난 경우
삿된 친구를 만난 경우

어떤 나라 어떤 형에게 당마강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쿵! 쿵!** **아, 아! 어떻게 해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사내들이 길을 걸고 있었다.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지각만 하지!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마.**

제석천왕이 하늘에서 보다못해 바라본의 몸으로 내려왔다. **몸을 버려 바른 법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리겠소.** **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면 너의 고민을 덜어 주리라.**

우익! 이게 웬 날벼락이나. **에, 에어백! 날개를 퍼라!**

항상 자비심을 내고 화내고 해칠 생각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눈물 흘리며 남의 좋은 일 기뻐하길 나의 경사로 여기라. **도의 뜻으로 중생 구하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나 좀 구해줘!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면 내 주식의 절반을 줄게. **싱크홀 귀신될 일이나. 아휴, 끔찍해라. 또 꺼질라!**

아, 아! 기쁘구나. 이제 바른 법을 들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휘익!**

아휴! 구조대구나. 이제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아! 주식은 많아?** **넵? 그럼 다시 줄을 끊어 드릴까요?**

그때의 어떤형은 정반왕이요. 당마강 태자는 부처님이시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그때의 구조대는 표창장이요. 도망간 친구는 네월호 선장이겠지. **아후~!**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312p"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 kg 15,000원
무료배송

성분 및 효능

- 시력개선 효과 ● 면역력, 기억력 강화 ●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불교서적
에세이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이야기>



▲ 전진 썸 현현 역음/불광출판사/1만2천원

니다. 두 젊은 스님이 이곳에 처음 살고 자 했을 때 은사인 정봉 스님께서는 몇 가지들 당부하셨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알람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은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새벽에 불에 모든 수행을 다 해 마쳐야 한다고 당부하셨던 것이고, 알람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행하기 좋게 몸과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 스님께서는 두 젊은 수행자에게 모기, 파리,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 생명에 대한 자비심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부분입니다. 스님들은 작은 텃밭에 배추농사를 짓는데, 벌레용 텃밭까지

고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철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벌 때문에 덧문을 달지 못한 채 한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쥐 밥도 따로 챙겨주는 등 홍서원 스님들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의 목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알뜰하게 챙겨주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서원 스님들의 삶의 방식이 불자로서 당연한 길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불교의 으뜸사상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다른 생명체와 서로 어울려 공존하고 나누는 기쁨을 느껴왔으면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죽기 싫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등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는 파리, 모기, 개미와 함께 살지 못하고 살충제를 뿌려 죽인다면 내 안의 자비심은 자꾸 줄어들고, 생명을 죽게 한 과보로 다음 생애 병약한 몸을 받게 되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50p)

‘모기 같은 해충은 괜찮겠지’ 하면서 거침없이 죽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농부의 쟁기에 죽어나는 벌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심을 느꼈는데... 이 책은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더욱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쥐 밥 챙겨주고 개미에게 손톱까지 나눠주는 자비심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어서 휴가는 못하고 영화 보고 책 읽으면서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흥행작이 된 ‘명량’도 한증막 더위를 식혀줄 만큼 재미있었지만 이 책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이야기>는 이번 여름을 더욱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이야기>는 지리산 화개골 맥전마을에서 손수 지은 집에서 수행하는 세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은사인 정봉 스님께 들었던 법문과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진스님이 쓰고, 현현스님이 보기 좋게 엮었는데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 나무와 현 문짝으로 만든 한 두 평 남짓한 각자의 토굴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은 새벽 2시 반이면 알람 없이 일어나

만들어 배추 7포기를 심었습니다. 김장용 배추에 벌레가 생기면 잔언을 해주면서 조심스레 벌레용 텃밭으로 옮겨주었고, 너무 작은 것은 옮기다가 죽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라 통통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겨주었습니다.

또한 홍서원 스님들은 개미에게는 손톱 보시를 하였습니다. 손톱을 자를 때 최대한 잘게 잘라 지나다니는 길에 놓아두면 개미들은 자기 몸 보다 더 큰 그것을 물고 갔는데,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정봉스님께서 방 한쪽 구석에 개미들을 위해 손톱과 콩을 두고 개미들이 거기서 마음껏 먹도록 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개미들이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발에 밟힐 지도 모르기 때문에 따로 개미 아지트를 만들어 주었다

한가위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할 전시, 공연 연극 및 전시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이번 한가위에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국악부터 사진전, 뮤지컬, 전시 등 장르도 추석 연휴 기간 한복을 입고 고궁 나들이부터 공연, 콘서트, 전시 등 연휴 기간 동안 볼만한 다양한 행사를 살펴보자.

남산국악당서 채향순 중앙무용단 무료 공연

9월 30일~10월 1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무료 공연이 진행된다. 국악당 마당에서 강강수월래, 모듬북 공연이 펼쳐지며, 전통무용수 10여 명의 춤사위와 신명 나는 타악기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02-2261-0511-5

조선시대 풍류방 재현한 ‘남산풍류’

이 국악당이 지난 3월부터 상설 공연해 온 ‘남산풍류’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관객을 만난다. 조선 시대 풍류방 형태의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돼 연주자와 관객의 소통할 수 있다. 공연은 매주 월, 화 저녁 8시에 열리며 관람료는 모든 자리가 5만원이다. ☎02-2261-0511

국악 10월 14일까지 ‘외국인 관광공연 오디션’

남산국악당에서 10월 4일까지 열리는 ‘서울남산국악당 외국인 관광공연 오디션’은 관객평가단이 한국 대표 공연을 뽑는 행사이다. 9월 28일 태권도에 K팝 댄스를 결합한 ‘태권 마살 아츠 퍼포먼스 쇼태권’을 시작으로 한국 무용 공연인 ‘삼박’과 ‘송인’이 각각 9월 30일과 10월 2일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 5000원. ☎02-2261-0512

현대사회 재조명하는 ‘달빛 속으로 가다’

10월 1일 세종 M씨어터에서 공연되는 ‘달빛 속으로 가다’는 2000년 초연 이후 12년 만에 서울시극단 김철리 단장과 다시 만났다. 이 작품은 작가가 기억하는 주변인의 의문사를 바탕으로 1980~90년대의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으며 현대사회의 모습 뮤지컬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살과 죽음’이라는 소재를 가볍게 풀어내 흥미롭습니다. 1만~2만원. ☎02-399-1114

뮤지컬 ‘시카고’ 추석 할인 이벤트

뮤지컬 ‘시카고’는 9월 28일~10월 3일 공연 예매자에 한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박칼린이 총무대감독을 맡고 인순이, 남경주, 윤공주, 아이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시카고’는 중독성 짙은 재즈 선율과 섹시한 댄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영등포 디큐브아트센터. 4만~11만원. ☎02-2211-3000

연인들을 위한 ‘김종욱 찾기’ 1+1 서비스

추석 연휴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커플이나 친구들에게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1+1 파격할인 서비스가 희소식이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국내 창작 뮤지컬 중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공유와 임수정 주연의 영화의 원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학로 예술마당 1관에서 공연 중이다. 4만5000~5만원. ☎1588-0688

모녀의 사랑 확인하는 ‘친정엄마와 2박 3일’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명절 동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좋은 공연이다. 아픈 딸과 엄마가 이별을 앞두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가슴 먹먹한 감동을 준다. 이 공연은 9월 29~30일 이들 동안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6만6000원, 7만7000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02-542-4145

작품성 흥행성 동시에 인정받은 연극 ‘거기’

연극 ‘거기’는 2002년 초연 당시 ‘올해의 베스트 연극3’과 ‘우수공연 베스트7’에 선정되며 탄탄한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이다. 올해는 드라마 <골든타임>의 주역 송선미·이성민이 다시 호흡을 맞춰 주목받고 있다. 한적한 강원도 마을 ‘주점’을 배경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려진다. 입장료 전 석 3만원. 대학로 아트씨어터. ☎02-762-0010

지적 장애 작가 ‘데니스 한’ 초대전

지적 장애 재미동포 화가 데니스 한 초대전 ‘with-소중한 만남’이 연휴 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데니스 한은 지난 4월 UN뉴욕본부에서 전시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번 전시 역시 데니스 한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주목된다.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북서문 꿈의숲 상상특목미술관. ☎02-2289-5401

고궁, 미술을 품다 ‘덕수궁 프로젝트’

9월 19일부터 시작된 ‘덕수궁 프로젝트’는 덕수궁 건물 곳곳에 작품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중화전과 정관헌 등 6개의 전각과 후원을 무대로 김영식, 류한길, 임향택 등의 작가, 디자이너, 무용가가 9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입장료 3000원 (덕수궁 입장료 포함). ☎02-2022-0600

문화재청주관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홍동)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가위를 맞아 9월에 풍성하게 펼쳐진다.

풍요로운 계절에 맞추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직접 선사하는 다양한 공연·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능 종목에서는 ▲ ‘석전대제’(9.3, 서울 성균관 대성전) ▲ ‘이리농악’(9.5, 전북 익산 배산체육공원) ▲ ‘은율탈춤’(9.13, 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 ▲ ‘강령탈춤’(9.14,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송파산대놀이’(9.20, 서울놀이마당) ▲ ‘거문고산조’(이재화/9.21, 서울 한국문화의 집) ▲ ‘판소리’(정철호/9.25,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 ‘가곡’(조순자/9.25, 경남 창원 가곡전수교육관) ▲ ‘가야금산조 및 병창’(문재숙/9.26,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

▲ ‘양주소놀이굿’(9.27, 경기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 등의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인 ‘사직대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지내던 국가 제사로, 오는 28일 서울 사직단에서 행해진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이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신들의 예술적 기량과 기술의 정수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좋은 기회이다. 공개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세소식)을 참조하거나, 전화(063-280-1443(예능)/063-280-1445(공예))로 문의하면 된다.

삼보전에 귀의합니다_()

(주) 주원항공여행사는 13년 전통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해외 여행 전문업체로서 불교성지순례 전문, 공무원해외연수, 공기업 및 일반기업 시찰, 패키지여행, 기획여행, 항공권 발권 및 전세계 비자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성지순례 및 기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주원항공여행사”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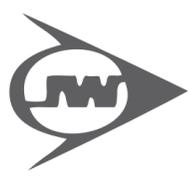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 주요업무 안내 - [예약문의 : TEL (02)733-2999]

- ▶ 전세계 불교성지순례행사
- ▶ 공무원해외연수 및 공공기관 해외연수
- ▶ 기업체 및 일반 해외여행
- ▶ 친목단체 맞춤형 기획 해외여행
-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 ▶ 전세계 비자수속 대행 업무

● 담당자 안내

- ▶ 대표이사 김 인수 (H. 010-3218-5474)
- ▶ 불교담당 총괄이사 (H. 010-8443-9001)



(주) 주원항공여행사
JUWON TRAVEL AGENCY

TEL:(02)733-2999 / FAX:(02)733-2998 / 홈페이지 : http://juwontour.co.kr / E-mail :juwon2999@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층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변화하는 성장기에 내면의 상처를 완화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아성장을 도와주는 집단심리상담프로그램입니다.

주최  불교총지중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

주관  중독예방교육원  명상센터 공감

 포이에시스  READINGCLINICCOOP
모두인성교육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